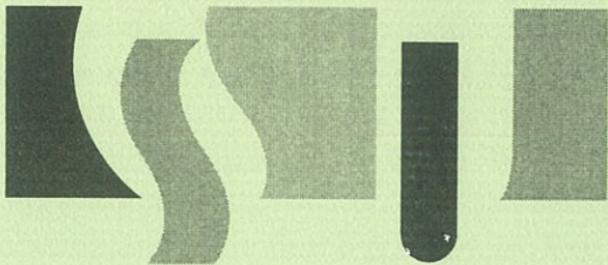


초 청 장

제 12 회

승실철학강좌

- 이삼열 교수 고별강연 -



▶ 일시: 2005년 5월 12일(목) 오후 5시

▶ 장소: 승실대학교 과학관 102호

주최: 승실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후원: 승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 모시는 말씀

안녕하십니까.

작년 가을 제11회에 이어 이번 봄에 제12회 숭실철학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강좌는 철학을 전공하는 분들이나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린 학습과 토론의 장으로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숭실 철학과는 이러한 열린 공간을 일찍이 1960년대부터 열어 왔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담당하신 이삼열 교수님은 1982년에 숭실 철학과에 들어오셔서 20년을 넘게 학교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해 이론과 실천 모두를 통해 봉사를 해 오신 분입니다. 이제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교육원 원장을 역임하신데 이어 한국 유네스코 사무총장으로 다시 임명을 받으시게 됨으로써 부득이 올해 3월부로 정든 학교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사회철학을 연구, 강의해 오시던 것을 실천의 장으로 이어 활약하시게 된 것이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학과로서는 여러 가지로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좌는 이삼열 교수님의 고별 강연을 겸하여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바쁘신 중에도 꼭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5월 일

숭실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장 김선욱
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장 정영환

행/사/순/서

▶ 사 회: 학 과 장

개 회
축 사 이 효 계 총장
강사소개 사회자
강 의 이 삼 열 교수

문명간의 대화와 상생의 철학

질 의 · 응 답	다같이
감사패증정	동문회
광 고	사회자
폐 회	

〈강사소개〉

- 서울대학교 철학과 학부 졸업 및 석사, 독일 Göttingen Univ 철학, 정치학 전공, 사회과학박사
- 크리스챤아카데미 간사, 재독한국 민주사회건설 협의회 의장, 승실대학교 철학과 교수, 승실대학교 기독교사회연구소장,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장, 세계교회협의회(WCC) 정의평화창조국(JPC) 운영위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운영위원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회과학위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회과학위원, 집행위원, 통합민주당정책위부의장, 한국철학회 다산기념강좌 운영위원장, 철학연구회장, 세계교회협의회(WCC) 중앙위원 및 실행위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장(초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편저서: 「사회봉사의 현장에서(기독교와 한국사회 4)」, 「사회발전을 향한 지방자치(사회발전연구 3)」, 「생명의 신학과 윤리(기독교와 한국사회 5)」, 「21세기의 아시아와 기독교대학」(기독교와 한국사회6), 「한국사회발전과 기독교의 역할」(기독교와 한국사회7), 「세계화시대의 기독교의 역할」(국제이해교육 1), 「아시아의 종교분쟁과 평화」 외 다수

승실철학강좌

- 제1회 (1999. 05. 13): 동서철학 매개의 미래 -조가경
제2회 (1999. 09. 09): 한국미의 조명 -조요한
제3회 (1999. 11. 18): 생활인의 철학 -김태길
제4회 (2000. 03. 16): 한국철학의 정체와 전망 -류승국
제5회 (2000. 05. 18): 플라톤 철학은 아직도 유효한가? -박종현
 제6회 (2000. 09. 21): 철학에의 권유 -최명관
제7회 (2000. 11. 23): 문학과 철학 -박이문
제8회 (2001. 05. 29):
 새로운 세기, 동양사상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김충열
제9회 (2002. 11. 28): 기독교 전쟁관, 기독교의 평화관-김기순
제10회(2004. 03. 25): 윤리학 연구의 방향 설정과 그 과제-진교훈
제11회(2004. 11. 25): 존재의 의미나 기호의 의미나 - 박이문

승실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⑩156-74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5동
tel.: (02) 820-0370 / fax: (02) 824-4382
e-mail: philosophy@saint.soongsil.ac.kr
<http://philosophy.soongsil.ac.kr>